

OPEC의 石油정책 변화와 그 평가

I. 되살아나고 있는 OPEC의 위력

OPEC(석유수출국기구)가 서서히 「石油 무기」의 칼날을 다시 갈기 시작했다.

OPEC는 70년대 이후 석유를 무기로 앞세워 오랜동안 세계를 호령해 왔었다. OPEC라는 거대한 카르텔은 原糖이나 고무등과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원유를 「검은색 黄金」으로 변신시키면서 그 위력을 떨쳐왔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지난 1년 사이 油價가 하락세를 거듭함에 따라 OPEC는 비틀거리는 꼴이 되더니 최근에는 붕괴위기를 몰고올 정도로 허약한 체질로 변모하기까지 이르렀었다.

그러나 OPEC는 86년 연말총회에서 OPEC의 석유 전략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것을 계기로 왕년의 건강한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다.

OPEC石油相들이 지난 12월 제네바에서 열렸던 연말총회에서 產油量 추가감축과 고정가격제로의 복귀에 합의함에 따라 국제油價가 다시 상승기류를 탐으로써 OPEC의 입김이 점차 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OPEC石油相들은 87년 1월부터 產油量을 종전보다 7% 줄어든 하루 1천5백80만배럴로 감축하는 동시에 87년 2월부터 배럴당 18달러의 고정가격제를 실시키로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전격합의함으로써 단기적으로 油價상승의 길을 터 놓았다.

지난 85년말 非OPEC의 시장점유율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增產정책을 실시한 이래 꼭 1년만에 다시 產油量

崔 弼 圭

(韓國經濟新聞 外信部기자)

감축을 통한 가격인상전략으로 돌아선 것이다.

OPEC가 產油量증가→가격하락→생산코스트 높은 非 OPEC 산유국의 도태→OPEC의 세계 석유시장 장악으로 이어지는 중전의 야심찬 長期석유전략을 포기하고 產油量감축→油價상승을 꾀하는 단순한 短期석유전략으로 급선회한 것은 그동안 低油價출혈경쟁으로 OPEC 회원국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데다 이로 인해 OPEC의 결속력이 약화되어 OPEC가 붕괴될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일단 이번 조치는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OPEC 회원국들의 심리가 적지않게 작용했지만, 이번 고정가격제 복귀를 계기로 OPEC는 한 단계 한 단계씩 油價수준을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아라비아의 파드국왕이 OPEC가 계획하고 있는 油價인상선인 배럴당 18달러는 최소한의 목표일 뿐이며, 세계의 석유수요가 증가할 경우 產油상한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나, 油價 18달러 고정가격제는 빠른 시일안에 油價를 배럴당 28달러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첫단계조치임을 강조한 이란측의 주장으로 미루어 볼때, 단계적으로 油價인상을 지속하면서 원유需給상황에 따라 조금씩 원유공급물량을 늘려나갈 공산이 크다.

會員國別 產油쿼터

(단위 : 백만B/D)

국 가	중 전 쿼 터	새 쿼 터
알 제 리	0.669	0.635
에 콰 도 르	0.221	0.210
가 봉	0.160	0.152
인 도 네 시 아	1.193	1.133
이 란	2.317	2.255
이 라 크	—	1.466
쿠 웨 이 트	0.999	0.948
리 비 아	0.999	0.948
나 이 지 리 아	1.304	1.238
카 타 르	0.300	0.285
사우디아라비아	4.353	4.133
아랍에미리트	0.950	0.902
베 네 수 엘 라	1.574	1.495
합 계	15.039 이라크제외	15.8

중전과 같이, 非OPEC산유국에 빼앗겼던 시장점유율 만회를 추구하면서 油價인상을 통한 石油收入 확보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나, 「先시장점유율확대, 後원유가격인상」 전략에서 「先원유가격인상, 後시장점유율확대」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OPEC의 카르텔로서의 기능은 점차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파드 사우디국왕은 OPEC의 代父로 통했던 야마니石油相을 86년 10월말에 전격해임시키고 자신이 OPEC석유전략수립의 최전방에 나섬으로써 약화된 OPEC 결속력을 굳건히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II.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蜜月여행

사실 그동안 OPEC를 분열로 몰고가고 있는 주요 요인중 하나는 회원국간의 뿌리깊은 갈등이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OPEC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에 도전하는 이란간의 反目は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것 같이 보였다.

사우디와 이란의 대립은 이란의 급진적 호메이니 정권과 보수적 사우디王政간의 해묵은 정치적 싸움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지만, 이들 양국은 석유정책을 둘러싸고 그동안 OPEC회의장 안팎에서 사사건건 충돌함으로써 OPEC 와해를 재촉하는 듯 했다.

그러던 것이 86년 연말총회를 계기로 온건파의 기수인 사우디와 강경파의 대표격인 이란이 OPEC의 단일석유전략을 위해 손을 굳건히 잡음으로써 OPEC의 결속력을 강화하는데 성공한 것이다.

사우디는 그동안 야마니前석유상의 주도로 시장점유율 확대전략을, 이란은 대폭적인 油價인상전략을 각각 실시할 것을 주장해 왔었다. 그러나 야마니의 시장점유율확대 전략이 油價폭락이라는 부정적 효과만 가져왔을 뿐,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파드 사우디국왕은 야마니를 경질하는 한편 충격적인 油價인상을 위한 고정가격제 실시를 주창함으로써 이란등 강경파들과 유대를 돈독히 하는 동시에 OPEC석유전략에 일대 전환을 시도한 셈이다.

물론 86년 연말총회에서 이라크가 13개 OPEC 회원국중 유일하게 새로이 減產되어 책정된 自由쿼터를 받아들이길 거부했지만, 그동안 OPEC단합의 최대 장애요

고정가격제 실시에 따른 새로운 OPEC産 원유가격

(단위: \$/B)

油 種	생 산 국	가 격
보니 라이트	나 이 지 리 아	18.92
사하라 블렌드	알 제 리	18.87
자르자이틴	알 제 리	18.87
브레가	리 비 아	18.67
주에이티나	리 비 아	18.67
머 반	아 랑 에 미 리 트	17.92
베 리	사 우 디 아 라 비 아	17.87
두 칸	카 타 르	17.82
자 쿵	아 랑 에 미 리 트	17.82
움 샤프	아 랑 에 미 리 트	17.72
마 린	카 타 르	17.67
티아후아나 라이트	베 네 수 엘 라	17.62
미나스	인 도 네 시 아	17.56
아랍 라이트	사 우 디 아 라 비 아	17.52
이란 라이트	이 란	17.50
만 지	가 봉	17.32
오리엔테	에 과 도 르	17.02
아 랑 中質油	사 우 디 아 라 비 아	16.92
이 랑 重質油	이 란	16.89
티아후아나 中質油	베 네 수 엘 라	16.72
쿠웨이트油	쿠 웨 이 트	16.67
아 랑 重質油	사 우 디 아 라 비 아	16.27

소였던 이란, 리비아, 알제리등 강경파를 사우디편으로 끌어 들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번 연말총회는 OPEC로서는 정치적 승리를 거둔 셈이라고 석유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Ⅲ. OPEC를 위한 최선의 정책전환

OPEC가 마켓셰어확대를 위해 끝없는 가격인하전략을 포기하고 대신 油價인상정책을 채택하려는 움직임은 작년 여름부터 엿보였다.

지난 해 8월 OPEC는 가격인하경쟁을 물고 오는 마켓셰어확대전략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합의함으로써 油價인상정책으로 향한 디딤돌을 놓았다. OPEC는 이어 작년 10월 장장 17일간의 마라톤회담끝에 이같은 잠정협정을 86년말까지 연장시키기로 합의한 후 연말총회

에서 본격적인 減産정책을 통한 高油價정책에 박차를 가한 것이다.

86년 12월 11일부터 10일동안 열린 OPEC 연말정기 총회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OPEC 26년 역사상 보기 드물게 OPEC 내부단결을 위해 힘을 합친데는 무엇보다도 파드 사우디국왕의 공이 컸다. 파드국왕은 이란, 리비아, 알제리등 이른바 OPEC内 3대 강경파들의 수뇌에 친서를 보내는가 하면, 때로는 직접 대화를 통해 OPEC단합을 촉구했다.

파드국왕은 이때부터 低油價출혈경쟁을 물고온 가격전쟁전략이 다만 재앙만을 가져다 주는 무용지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OPEC 회원국들의 공정한 국별産油쿼터減産을 결행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같은 과정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의 비밀협상이 있었다는 점이다. 지난 여름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란의 석유수출收入을 고갈시키는 원유가격 전쟁을 종결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그 댓가로 이란도 페르시아 연안에서 원유운송작업을 하는 사우디, 쿠웨이트등 아랍국가들의 유조선에 대한 공격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던 것이다.

이같은 사우디·이란 양국의 비밀협상의 성공으로 오랫동안 이란과 함께 사우디타도를 외쳐대던 알제리, 리비아등 OPEC内 강경파들도 사우디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86년 연말총회는 모든 주요 OPEC회원국들에 정치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었다고 석유분석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란의 최고 권력자인 호메이니는 86년 연말총회를 사우디와 함께 성공적으로 이끌므로서 이란의 전쟁상대국인 이라크를 사우디측으로부터 어느 정도 떼어 놓을 수 있었다고 만족하고 있으며, 리비아의 카다피원수는 이번 OPEC의 새로운 석유전략으로 油價 30달러시대를 위한 막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새로운 석유전략채택은 파드 사우디국왕에도 정치적 명성을 가져다 주었다. 파드 사우디국왕은 야마니의 해임으로 OPEC의 구심점이 흔들릴 것이라는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멋드러지게 산유량 추가감산 및 油價 18달러 고정가격제로의 복귀라는 걸작을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이라크도 지난 총회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이

라크는 비록 이번 減産협정에 유일하게 참여하길 거부함으로써 OPEC內에서 다소 고립된 감은 없지 않지만, 필요할 경우 自國쿼터 이상의 원유를 생산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IV. OPEC가 넘어야 할 장애물

새로운 OPEC의 석유협정이 모든 회원국들에 최선의 정책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OPEC가 넘어야 할 장애물들은 아직도 많다. 그 장애물들은 대략 다음과 같이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이라크 참여거부와 영구적인 국별쿼터마련실패

우선 앞서서도 지적했듯이 이라크가 減産협정에 참여하길 거부했으며, 더군다나 産油量 감축합의도 87년 2/4분기까지의 잠정합의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OPEC油價인상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이라크가 油價인상을 위한 OPEC의 노력에 저해되는 극단적인 행위는 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란과 전쟁 중인 만큼 전쟁수행을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언제 석유輸出을 대폭 증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상존하는 것이다.

또 OPEC 회원국들은 이번에도 영구적인 국별産油쿼터 마련에는 실패한 채 2/4분기까지 하루 1천5백80만 배럴 수준으로 産油量을 감축하고 3/4분기중에는 OPEC총産油量을 하루 1천6백60만배럴, 4/4분기에 들어선 하루 1천8백30만배럴로 잠정적으로 확대책정했다.

물론 후반기 OPEC 산유량 수준은 오는 6월25일 개최될 예정인 OPEC 차기 정기총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나, OPEC가 계절에 따라 총産油量 수준을 계속 변경할 경우, 석유시장 안정화에 역행할 소지가 많은 것이다.

2. 非OPEC산유국들의 협조여부 불확실

노르웨이, 멕시코, 말레이시아등 일부 非OPEC 산유국들이 OPEC의 油價안정조치에 협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들의 이같은 협조적 태도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태이다.

OPEC 회원국들마저 自國에 배정된 원유생산할당량을 초과하여 공급하려는 강력한 유혹을 항상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때 非OPEC산유국들이 增産유혹을 계속 뿌리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의문인 것이다.

談話에 의해 형성된 독점가격은 시장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완전경쟁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게 마련이므로 개별공급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타 공급자들이 그들의 쿼터를 준수할수록 단독으로 쿼터를 초과하여 공급하면 곧 그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제油價동향을 민감하게 반영하고 있는 北海産 브렌트油의 거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英國과 세계 최대 産油國인 蘇聯은 OPEC의 減産정책에 참여하길 줄곧 거부해 왔기 때문에 어떻게 이들을 설득시켜 油價안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느냐가 주요 과제로 남은 것이다.

3. 국별쿼터 할당을 위한 기준요소 책정의 어려움

이번에 새로이 설정된 쿼터도 2/4분기까지의 잠정조치에 불과한 만큼 장기적인 쿼터 마련에는 상당히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쿼터책정에서는 같은 비율로 모든 회원국들의 産油量을 감산함으로써 결국 이라크가 불만을 터뜨려 이 減産협정체결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라크는 석유매장량 및 産油능력면에서 이란을 앞지르고 있다고 주장, 이란보다 훨씬 낮게 책정된 自國산유쿼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의 OPEC 쿼터배분에는 많은 모순이 내재해 있다. OPEC石油할당도 모든 회원국들이 공평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産油量할당공식을 찾아내기 위해 각국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靛족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OPEC는 이 문제가 해결돼야만 국제석유 시장에서의 가격 통제권 재장악에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

OPEC의 석유전략 추진과정에서 항상 북병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제점이 産油할당시 감안해야 할 기준 (매개변수)을 어떻게 선택하고 평가하며 가중치는 어떻게 두어야 하느냐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항상 OPEC의 두통거리로 등장해 왔다.

OPEC는 인구의 크기, 석유매장량, 생산능력, 과거의 시장점유율, 경제의 석유의존도, 국내석유소비량, 원유생산코스트등을 주요 기준요소로 설정해 놓고 있지만, 이들 요소에 부여할 가중치문제에 이르러선 각국 경제사

정이 달라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 고정가격제 복귀에 따른 원유바스킷 설정

OPEC의 고정油價 18달러는 7種의 원유에 대한 가중평균치이다.

원유 바스킷에 포함된 油種은 사하라 블렌드, 미나스, 보니 라이트, 아랍 라이트, 티아후아나 라이트, 두바이, 이스머스등 7개이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OPEC의 새로운 원유가격 결정에 非OPEC 산유국의 원유인 이스머스油(멕시코産)가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원유바스킷에 이처럼 非OPEC 산유국의 油種을 포함시킨 것은 非OPEC産 원유가격 동향에도 예의 주시, OPEC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멕시코가 非OPEC産油國중에서는 OPEC정책에 가장 협조하고 있는 국가이기는 하나, 멕시코産원유를 원유바스킷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멕시코가 油價를 정책상 조작할 경우 OPEC는 자칫 가격선도자로서의 지위에서 가격추종자로 전락하게 될 소지가 있는 것이다.

5. 사우디를 대하는 이라크·쿠웨이트의 태도변화

사우디아라비아는 86년 연말총회에서 이란, 알제리, 리비아등 OPEC内 강경파들과 油價인상을 위한 일련의 정책토론과정에서 공동보조를 취함에 따라 그동안 불편한 관계를 보였던 이들 강경파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그대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란과 7년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라크 및 오랜 측근인 쿠웨이트에 미움을 사는 부정적 효과도 함께 맛보았다.

이라크는 현재 사우디로부터 하루 20만배럴의 원유를 무상으로 원조받고 있어 사우디와 이란의 밀월여행에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내심 사우디의 태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 사우디와 석유정책상 노선을 같이해온 쿠웨이트는 지난번 회의에서 사우디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할리파 쿠웨이트石油相은 그의 오랜 친구인 야마니가 갑자기 해임된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긴데다 파드 사우디국왕이 石油相들을 제치고 전면에 나서 OPEC정책을 주도하려는데 크게 불만을 토로했다.

따라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OPEC 회원국内的 이같은 불협화음을 어떻게 해소하느냐는 문제도 중요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V. OPEC 회원국들의 利點

이같은 문제점들만 극복된다면 OPEC의 장래는 그렇게 어두운 것만은 아니다. 美國의 경제학자인 프리드만 교수나 미래학자인 허먼 칸은 OPEC가 결국 붕괴될 것이라고 예측했으나, 이같은 전망은 빗나가고 있는 느낌이다.

OPEC회원국들(특히 中東산유국들)은 원유매장량, 생산코스트, 산유량 조절능력등 3가지 면에서 非OPEC 산유국들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OPEC가 가격결정 주도권을 다시 장악할 것이라는게 석유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이다.

1. 원유매장량

15~20년전만 하더라도 많은 매장량을 갖고있던 알래스카, 北海 및 멕시코의 油田들이 최근의 산유량 증가로 거의 바닥이 나고 있기 때문에 中東외에 많은 원유가 매장돼 있는 곳이 없다. 中東지역의 원유매장량이 무려 4천억배럴인 반면 알래스카지역의 원유매장량은 1백30억 배럴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OPEC 13개국 원유매장

原油매장량·원유생산코스트·하루생산량

지 역	매장량	생 산 코스트	하 루 생산량
中 東	399	1~2	10.7
공산권(중공, 소련, 기타)	84	—	15.0
中 南 美	83	2~10	6.7
아 프 리 카	56	4~6	5.4
유 럽	25	2~5	4.0
美國(알래스카 제외)	22	3~15	8.8
아시아 및 호주	19	3~10	3.3
알 래 스 카	13	6~8	1.7
캐 나 다	8	14	1.8

※매장량(단위: 10억배럴), 생산코스트(단위: 배럴당 달러), 하루생산량(단위: 백만배럴).

량은 자유세계 총원유매장량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시간이 갈수록 OPEC의 입김은 세어질 것이다.

2. 생산코스트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中東산유국들은 아직도 세계적으로 가장 저렴한 에너지供給源이다. 원유생산코스트 면에서 볼 때 中東지역은 배럴당 불과 1~2달러가 드는 반면, 美國은 3~15달러, 유럽은 2~5달러등이 소요됨으로써 OPEC가 단연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다.

3. 產油量 조절능력

中東산유국들은 또한 하루에 수백만배럴을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는 산유량 조절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는 원유수급상황에 그만큼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뜻이

다. 사우디아라비아가 油價안정을 위해 과거 한때 하루 2백만배럴 수준으로 산유량을 감축했었으나, 최근에는 그 2배인 4백만배럴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다. 사우디는 하루 최대 8백80만 배럴까지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PEC가 86년 연말총회를 계기로 석유전략을 종전의 物量위주에서 價格위주로 전환한 시점에서 이같은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OPEC의 단결만 보장된다면 OPEC는 언젠가는 지난 70년대의 영광을 또한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0년대 이후의 역사는 잉크가 아닌 石油로 쓰여졌다』고 할만큼 문명의 발달과 함께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 등장했던 石油가 지난 1년간의 천덕꾸러기 신세에서 벗어나 그 위력을 서서히 발휘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 석유개발동향 □

87년 海洋 石油산업 전망

海洋 석유산업에 있어서 지난해는 매우 침울한 한 해였다.

전문가들은 금년의 海洋 석유산업도 이러한 침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油價가 금년들어 계속 上昇추세에 있으나 금년 하반기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海洋 석유산업이 크게 호전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대체로 금년도에도 석유회사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Wildcat을 기피하고 development well을 개발하는 쪽에 더 관심을 두게 될 것 같다.

그러나 멕시코灣 深海 지역에서는 금년 하반기 이전에 탐사 시추가 호조를 이룰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금년의 海洋 개발에 있어서 브라질이 國營石油會社 Petrobra를 통해 활발한 활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금년에 브라질은 海洋 석유탐사 및 개발에만 40척의 리 그를 동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멕시코灣과 브라질의 深海 海域에서

의 油田발견 성공이 邊境地域(frontier)의 개발을 부추게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試錐, 생산 및 수송기술로 해서 석유발견 비용이 낮아지면 석유회사들은 深海쪽의 개발로 옮겨갈 가능성도 크다.

기술의 발전은 석유발견 비용을 10~30% 정도 낮추어주게 될 것인데 이렇게 되면 亞北極 및 北極에서의 석유개발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재 北極에는 세계석유 및 가스가채 매장량중 40% 이상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OPEC이 생산제한을 충분히 달성, 油價가 15~20달러 선에서 유지된다면 금년말부터 탐사활동이 회복되어 1988~89년에 가면 北海의 Jackup 및 Semi의 수급상황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요컨대 금년에는 작년의 침체상황이 그 여파를 미칠 것이나 또한 海洋 석유산업이 회복되어가는 과도기가 될 것이다.